

# 고령화·저출산이 경제·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박 영 상 \*

## I. 고령화 · 저출산의 현황과 전망

### 1. 고령화의 현황 · 전망 · 원인

#### □ 고령화\*\* 현황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고령인구 비중은 9.1%를 기록하여 2000년 이후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
    - UN의 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4 Revision, 2005)에 따르면, 2005년 세계전체 인구는 6,465백만명이고, 고령인구비중은 7.4%(476백만명)를 기록하여 전세계는 ‘고령화사회’에 진입
    - 대륙별 고령인구비중 : 유럽(15.9%), 북미(12.4%), 오세아니아(10.0%), 아시아(6.4%), 중남미(6.1%), 아프리카(3.4%)

<표 1> 고령인구비중 추이 (단위 :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05
총 인 구 (A)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고령인구 (B)	991	1,456	2,195	3,395	4,383
고령인구비중 (B/A)	3.1	3.8	5.1	7.2	9.1

자료 :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2005

\*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며, 내용 문의는 전화 787-7833, 이메일 [waiespark@kdb.co.kr](mailto:waiespark@kdb.co.kr)로 하기 바람

\*\* 고령화(Aging)라는 용어는 1956년 UN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총인구 중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노화 현상을 말함. 국제연합(UN)은 고령인구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고령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정의함

## □ 고령화 전망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 2018년부터 베이비붐세대('53~'65년생)가 고령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고, 총인구는 2020년 49,95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lt;표 2&gt; 고령인구비중 전망

(단위 : 천명, %)

	2000	2010	2018	2020	2026	2030
총 인 구 (A)	47,008	49,220	49,934	49,956	49,771	49,329
고령인구 (B)	3,395	5,354	7,162	7,821	10,357	11,899
고령인구비중 (B/A)	7.2	10.9	14.3	15.7	20.8	24.1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소요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일본 12년, 프랑스 40년 소요 예상

&lt;표 3&gt;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고령인구 비중 국가	도달년도			소요년수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영 국	1929	1976	2020	47	44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 고령화의 주요원인

-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된 평균수명\*의 증가
  - 보건·의료 수준의 발전, 영양상태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평균수명 증가
  - 2005년 평균수명은 77.9세로 1971년에 비해 15.6세(25.0%) 증가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장래에도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 81.9세, 2050년에는 83.3세를 기록할 전망

※ 2000~2005년 평균수명 추정(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5)

: 전세계(65.4세), 선진국평균(75.6세), 개도국평균(63.4세)

<표 4> 평균수명의 추이와 전망

	1971	1981	1991	2000	2005	2030	2050
평균수명(세)	62.3	66.2	71.7	75.9	77.9	81.9	83.3

자료: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2. 저출산의 현황·전망·원인

### □ 저출산 현황

-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로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
  - 2005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비해 각각 569천명(56.5%), 3.45명(76.2%) 감소
  - 또한, 장기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OECD회원국의 평균수준(1.60명) 및 대표적인 초저출산국가인 일본(1.25명)보다도 저조

※ 2000~2005년 세계의 합계출산율(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5)

: 전세계(2.65명), 선진국평균(1.56명), 개도국평균(2.90명)

<표 5>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5
출생아수(천명)	1,007	865	659	637	438
합계출산율(명)	4.53	2.83	1.59	1.47	1.08

자료: 통계청,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2006

\*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당해연도 현재 0세인 사람의 평균 여명(餘命)으로서 어떤 연령의 사람이 장차 평균 몇 년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치이며, 현재 연령별 사망률의 불변을 가정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치보다 과소평가됨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출산력 국제지표로서 가임여성의 연령별 평균출산율을 합계하여 산출함

- 합계출산율 감소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
  - 우리나라는 1970~2004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3.37명이나 감소
  -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감소폭(1970~2004년)
    - : 일본(0.84명), 독일(0.66명), 영국(0.69명), 프랑스(0.57명), 미국(0.41명)

&lt;표 6&gt;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1980	2.83	1.75	1.84	1.99	1.46	1.89
1990	1.59	1.54	2.08	1.78	1.45	1.85
2000	1.47	1.36	2.13	1.88	1.38	1.64
2003	1.19	1.29	2.04	1.89	1.34	1.71
2004	1.16	1.29	2.05	1.90	1.37	1.74

자료 :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005 및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2006

## □ 저출산 전망

- UN의 추정에 의하면,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65명(2000~2005년)에서 2.05명(2045~2050년)으로 0.6명(22.6%) 감소할 전망
  - 동 기간동안 선진국의 합계출산율은 17.9% 증가하는 반면, 개도국의 합계출산율은 28.6%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 : 1.56명(2000~2005년) → 1.84명(2045~2050년)
    - 개도국 : 2.90명(2000~2005년) → 2.07명(2045~2050년)

&lt;표 7&gt; 대륙별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명, %)

	1970~1975 (A)	2000~2005 (B)	2045~2050 (C)	증감률	
				A→B	B→C
세계	4.49	2.65	2.05	△41.0	△22.6
선진국	2.12	1.56	1.84	△26.4	17.9
개도국	5.44	2.90	2.07	△46.7	△28.6
아프리카	6.72	4.97	2.52	△26.0	△49.3
아시아	5.08	2.47	1.91	△51.4	△22.7
유럽	2.16	1.40	1.83	△35.2	30.7
남미	5.05	2.55	1.86	△49.5	△27.1
북미	2.01	1.99	1.85	△1.0	△7.0
오세아니아	3.23	2.32	1.92	△28.2	△17.2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4 Revision」, 2005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합계출산율의 최근 5년간(2000~2005년) 연평균감소율 : 5.9%

## □ 저출산의 주요원인

### ○ 인구구조상의 원인

- 주출산연령층(25~29세)의 여성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
  - 주출산연령층 : 2,193천명('00년) → 1,904천명('04년), 289천명 감소
- 주출산연령층(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주출산연령층 여성의 출산율(해당연령 여성 1천명당 출생아수) : 150.6명('00년) → 104.6명('04년), 46.0명(30.5%) 감소

### ○ 사회·경제적 요인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출산여건 악화
  - 여성의 대 학 진 학 륜 : 22.2%('80년) → 80.8%('05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42.8%('80년) → 50.1%('05년)
  - 주출산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 32.0%('80년) → 63.1%('05년)
- 자녀양육비 급증과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양육여건 악화
  - 2005년 전체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46만원)는 전체가구 월평균소득(294만원)의 15.6%나 차지

※ 「2005년 전국 평균소득가구의 출산중단 사유조사」 결과(보건사회연구원)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44.5%), 경제적 불안정(14.3%)

### ○ 결혼·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여성 혼인건수 및 초혼건수의 지속적인 감소, 여성 초혼연령 및 미혼율의 상승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
  - 여성 혼인건수 : 435천건('96년) → 316천건('05년), 27.4% 감소
  - 여성 초혼건수 : 350천건('81년) → 245천건('04년), 30.0% 감소
  - 여성 초혼연령 : 22.6세('72년) → 27.7세('04년), 21.7% 상승
  - 20대 여성 미혼율 : 34.6%('70년) → 69.3%('05년), 34.7%p 상승

※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보건사회연구원)  
· 미혼남녀의 '결혼의 절대필요성'에 대한 태도 : 미혼남성(29.4%), 미혼여성(12.9%)  
· 기혼여성의 '자녀의 절대필요성'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 73.7%('97년) → 58.1%('00년) → 23.4%('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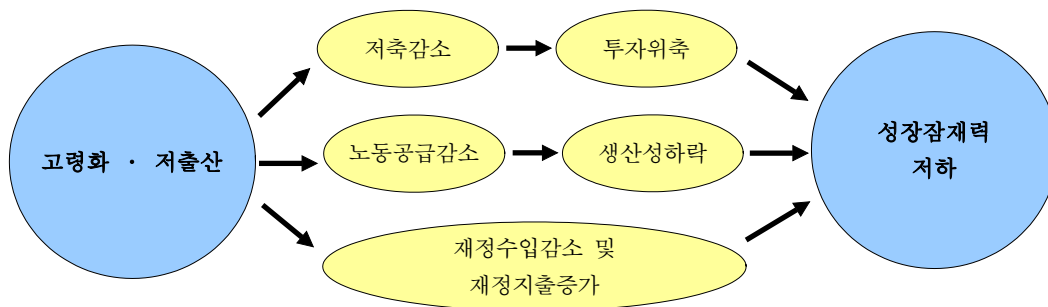
## Ⅱ. 고령화 · 저출산의 영향

###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성장잠재력의 저하

-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저하, 저축감소,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
  - 우리나라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전망(KDI,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2004)
    - 4.82%(2010년대), 3.56%(2020년대), 2.25%(2030년대), 1.38%(2040년대)
  - 1인당 GDP증가율 전망(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1% 상승 → 1인당 GDP 0.041%p 하락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1% 상승 → 1인당 GDP 0.08%p 상승
  -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OECD, Facts and Figures, 2001)
    - 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을 매년 0.25~0.75%p 하락

<그림>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노동력 공급규모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

- 고령화 · 저출산은 노동력 공급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직 · 간접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에 영향
  - 직접 효과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공급규모 축소 → 생산 감소 → 성장잠재력 저하
  - 간접 효과 : 고령인구 증가 → 저축(자본공급) 감소 → 투자 등 총수요 감소 → 성장잠재력 저하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50만명(총인구의 73.2%)을 정점으로 2030년에 3,189만명(총인구의 64.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노동연구원, 2005)
    - 향후 노동력은 63만명(2015년), 152만명(2020년) 부족
- 또한, 생산가능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전망 : 38세(2005년) → 43세(2030년)
  -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층(50~64세) 비중 전망
    - 20.5%(2005년) → 33.2%(2020년) → 37.2%(2030년) → 40.5%(2050년)

####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축 감소

- 저축은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
  - 생애주기소비이론\*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가계저축률은 하락
  - 고령층(60세 이상)의 저축 감소성향이 근로계층(25~59세)의 저축 증대성향을 5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OECD, 2005)
  - 또한, 향후 재정수지의 악화는 정부저축률 하락을 초래

#### □ 생산성 하락 및 저축 감소에 따른 투자위축

-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자본수익률을 하락시켜 전반적인 투자위축을 초래
- 저축 감소는 국내 투자재원 축소로 투자위축을 초래
  - 국제자본의 국내유입이 활발할 경우 저축 감소에 따른 투자위축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 생애주기소비이론(Life-cycle income theory of consumption)은 Modigliani, Ando, Brumberg 등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서 사람들이 평생 동안의 소득을 감안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함

## □ 재정수입 감소·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수입,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복지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및 연금·보험지출의 지속적 증가 예상
-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장기적 적자 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05)
  - GDP대비 재정수지 전망 : 0.7%(2004년) → △7.7%(2050년)
  - 2004년 OECD회원국 GDP대비 재정수지(평균) : △3.3%
- IMF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시 GDP대비 재정수지는 0.46%p 악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 상승하면 0.06%p 개선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 2. 산업에 미치는 영향

## □ 제조업 비중 하락, 서비스업 비중 상승

-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제조업 비중 하락
- 고령인구 증가는 금융, 공공·개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서비스업 비중 상승
- 고령화·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고령화 진전 등으로 제조업 비중이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상승

&lt;표 8&gt;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부가가치비중

(단위 : %, %p)

	제조업			금융업			공공·개인서비스업		
	1985	2002	증감	1985	2002	증감	1985	2002	증감
일본	27.4	19.7	△7.7	18.9	27.4	8.5	19.7	22.0	2.3
독일	30.2	22.4	△7.8	21.9	29.8	7.9	19.9	21.4	1.5
프랑스	23.2	17.5	△5.7	23.9	30.5	6.6	21.3	23.7	2.4

자료 : OECD



## □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 고령화 진전으로 고령인구가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실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전망
-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고령인구비중이 10%를 초과하는 2008년경에 본격적인 시장형성 예상
- 베이비붐세대('53~'65년생)의 고령인구 편입이 시작되는 2018년경에는 시장성숙 예상
-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시장규모 추정(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 6.4조원(2002년) → 30.5조원(2010년) → 115.7조원(2020년)
  - 일본의 실버산업 시장규모 : 39조엔(2001년) → 155조엔(2025년)

&lt;표 9&gt; 실버산업의 범위와 분야

	실버산업의 분야
보건사회연구원 (1996)	주거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재가복지서비스, 의료·복지용구, 금융·보험, 여가분야
삼성경제연구소 (2002)	장기요양서비스, 위험방지·안전시설, 의료·건강, 여가·오락, 일상생활, 정보·학습
보험개발원 (2003)	주거관련, 의료관련, 간병관련, 금융관련, 여가관련, 일상생활관련, 직업관련

- 고령인구의 생존·건강·재무리스크 등을 최소화하거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분야는 고령친화 금융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lt;표 10&gt;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고령친화 금융서비스
생존리스크 관리	국민연금,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등
건강리스크 관리	국민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노인수발보험, Total Life Care 서비스
재무리스크 관리	수익 장기금융상품, 배당형연금보험, 자산관리서비스(PB, FP 등)

자료 : 보험개발원, 「고령화 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2005

## 3. 금융에 미치는 영향

## □ 개인 금융수요의 변화

- 현재 개인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비중이 매우 낮으나, 향후에는 고령화 진전 등으로 금융자산비중이 크게 상승할 전망

- 특히, 개인의 금융자산 수요는 현금자산보다 유가증권, 보험·연금으로 이동할 전망
  - 조기퇴직 및 장기화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유가증권 등 고수익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연금 등 보장성이 강화된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수익성과 보장성이 우월한 유가증권 및 보험·연금 중심으로 이동
- 주거안정을 위한 모기지론, 보유부동산 유동화를 위한 역모기지론 등 장기대출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2004년 개인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비중은 17.0%, 비금융자산비중은 83.0%
  - 베이비붐세대 및 30~40대의 주택구입 수요증대,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등에 따른 부동산 선호현상의 결과
- 2004년 개인의 금융자산 보유구조는 예금 등 현금자산 중심
  - 현금자산(55.3%), 유가증권(17.7%), 보험·연금(20.9%)

#### □ 기업 금융수요의 변화

- 2010년경 본격적 실버시장 형성 및 향후 빠른 성장 예상으로 기업들의 고령친화산업 진출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전망

<표 1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2002	2010	2020
시장규모(조원)	6.4	30.5	115.7
고용창출(만명)	17	41	66

자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2005

- 또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전망
  - 정부는 2005년 1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성장예상분야로 8대 고령친화산업과 19개 전략품목을 선정
  - 2006년 7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06~'10년 동안 6조원을 투입할 예정

&lt;표 12&gt; 8대 고령친화산업 및 19개 전략품목

8대 산업	19개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의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 콘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 주택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향노화 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자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2005

- 한편, 기업의 경영개선,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현금성자산이 누적되어 여유 자금 운용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
- 2005년말 우리나라 제조업은 사상최저의 부채비율(100.3%)과 차입금의존도(21.4%)를 기록하면서 현금성자산은 84.3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lt;표 13&gt; 제조업의 주요경영지표 및 현금성자산 추이 (단위 : %,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부채비율	185.8	167.6	127.3	116.1	105.8	100.3
차입금의존도	36.9	34.4	30.2	25.7	22.6	21.4
현금성자산	48.9	45.6	56.8	65.1	79.4	84.3

자료 :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2006

#### □ 정부 금융수요의 변화

-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수익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안전성을 중시하여 국채 등 채권투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향후 장기적인 재정적자에 대비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 안전자산 위주에서 벗어나 고수익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예상
-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장기채 발행이 증가할 전망
- 2006년 7월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06~’10년 동안 총 32.1조원을 투자할 계획
- 투자재원별 규모(조원) : 국비(11.3), 지방비(13.0), 기금 등(7.8)

### Ⅲ. 기업금융 측면의 시사점

#### □ 기업 생산성 향상활동에 금융·세제상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

-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수준 개선이 요구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필요
  - 다양한 노동력(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공급확대 여건 마련
  - 노동생산성의 질적 저하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혁신, 1인당 자본비율 증대, 교육훈련을 통한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추진 및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확대

#### □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절실하므로 이를 위한 금융지원 다양화
  -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 적극 발굴 및 투자확대
    - 핵심부품·소재산업, 신기술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 대체 에너지산업, 환경서비스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 특히, 고령화와 관련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
  - 특성상 고령친화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 내수기반이 취약하므로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6T산업과 융합된 고령친화 신기술개발 기업에 자금공급은 물론, 경영자문, 사업성검토, 기술평가 등 지원
- 또한,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에 따른 기업들의 동 산업 진출과 투자를 지원
  - 요양시설단지, 복합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과 투자확대로 기업금융 수요 예상
  -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06~'10년 동안 6조원을 투입할 계획

□ 신규수익원 발굴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

- 예측가능한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시장의 정체와 감소에 대비하여 기업은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
  -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소비증가가 예상되나, 수명 및 노후기간의 연장은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 사회 전체적인 구매력 약화는 기존사업에 대한 매출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어 신규 수익원의 발굴 필요성 제기
-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하여 M&A등 필요한 기업금융 수단 제공
  - 기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으로 성숙기를 넘은 사업부문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매각
  - 전문성 특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
  - 정부와 금융기관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

□ 기업금융제도 개선과 시의 적절한 금융상품의 개발·공급 필요

- 기업의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한 신축적인 금융제도 개선
  -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금공급을 통하여 기업에 신규수익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 또한, 기업의 고령친화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수요와 장기적인 여유자금 운용수요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공급을 요구
  - 고령친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수요를 성장단계별·업종별로 특화하여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 기업에게 대규모 현금성자산의 운용기회를 제공하고, 운용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투자상품